김용범 (가칭)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 위원장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용범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본시장 개혁의 방향타를 맡은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의 기초공사가 완성된 해입니다.
지난 1년 자본시장 개혁작업은 **이사의 주주 충실과 자사주 소각 의무 도입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장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개혁이 아직 절반의 완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의 특성상 나머지 절반을 완주하지 못하면 그간의 개혁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초공사만 완공된 건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여 **완성된 자본시장 이라는 건물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본시장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 주식시장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공정성과 편의성에서 우위를 점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시장은 냉정하며 투자자들은 국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경쟁력이 없다면 발길을 해외 시장으로 돌릴 것**입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글로벌 시장 강자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발전은 한 나라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직결됩니다.
1990년대 일본과 미국의 1인당 GDP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다른길을 갔습니다. 미국은 401K 도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역동성을 개선해 나간 반면, 일본은 부동산 경제라는 늪에 빠져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일본이 따라갈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위원회도 한국인 특유의 역동성을 발판으로 **자본시장을 개혁하여 경제 대도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헌법 제1조는 '대주주 1주 가치 = 일반주주 1주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자본시장에도 **'대주주의 1주와 일반주주의 1주의 가치는 동일하다'** 대원칙이 있습니다. 위원회도 이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주주들이 기업가치 성장의 과실을 누릴수 있도록 촘촘한 자본시장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때늦은 개혁은 우리 자본시장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절호의 기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혁작업 과정에서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중요도에 따라 주요 작업을 먼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혁의 성과는 시장에서 바로 체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8년간 금융산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제 경력의 마지막을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간 받은 혜택을 돌려드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